

# 인문학자의 정보자원 이용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윤정옥(Cheong-Ok Yoon)\*\*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이 최근 학술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어떤 정보자원을 이용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며, 앞으로 오년 동안 이용 빈도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문학자들의 정보자원 이용행태의 현상과 변화에 관한 전망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도서관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스물다섯 개 대학 소속 인문학 분야 교수 중 799명을 표본으로 확정한 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우편 서베이를 실시하여, 모두 132개의 분석 가능한 설문을 수집하였다. 서베이 응답자들은 대체로 연구와 교육에 균등한 시간을 배분하며, 대부분 단독연구를 수행하는 독자적 연구행태를 보였다. 책과 인쇄학술지(심사)로 대표되는 전통적 자원의 현재 이용 빈도 및 중요성의 인식도가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전자원문, 전자학술지 등 텍스트 형태의 전자자원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았고, 향후 오년 동안 그 이용 빈도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문학자들 가운데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및 최고경력자 집단 사이에 정보자원의 이용 행태 면에서 다소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을 위해 (1) 보다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 수행, (2) 인쇄 및 전자자원 장서의 균형적 구성 및 우선순위 결정, (3) 전통적 정보자원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의 적절한 수행, (4) 전자자원 이용 행태의 현황 및 변화 추이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교육 시행, 그리고 (5) 적절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역할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and suggest the strategic planning of academic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to serve their needs. To collect data, a mail survey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2007 through January 2008. Out of 799 humanities scholars sampled from 25 universities, 132 responded with the completion rate of 16%.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jority of the humanities scholars distribute their time equally to research and education, and conduct independent research. Second, they still largely depend on print resources, including scholarly journals, books, and manuscripts for getting information, while using some online information resource mostly in text such as electronic documents and journals. They expect that the frequency of using such print resources would not decline much, but the use of online resources could definitely increase in the next five years. Some variances in the behavior were observed among the groups of scholars according to their research experiences. It is suggested that academic libraries (1) conduct more active outreach, (2) prioritize between traditional and electronic resources, (3) plan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for traditional resources.

키워드: 인문학자, 정보행태, 정보자원이용, 대학도서관  
humanities scholars, information behavior, use of information resources, academic libraries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H00011)(신진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전공 교수(jade@cju.ac.kr)

- 논문접수일자: 2009년 2월 2일 ■ 최초심사일자: 2009년 2월 10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2월 19일
- 정보관리학회지, 26(1): 7-34, 2009. [DOI:10.3743/KOSIM.2009.26.1.007]

## 1. 서론

최근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정보원과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학술연구자의 정보환경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등장하고 웹상에서 공개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동시에, 구글이나 아마존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인터넷 검색서비스가 기존의 학술정보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 길잡이였던 도서관 목록, 고문서 발견도구 및 온라인데이터베이스에 합류하였다(Brockman et al. 2001). 서적의 판매뿐만 아니라 상호대차까지도 주선하는 아마존과 같은 서점, 인포트리브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상업적 원문제공자를 포함한, 학술정보의 검색 및 접근경로가 다양해지고, 학술연구자들이 반드시 대학도서관을 유일한 정보원으로서 의존하지 않아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전에 도서관은 “정돈되고 잘 정의된 세계(tidy and well-defined universe)”의 중심에 있었고, “질서와 이성(order and rationality)”의 상징이었다. 또한 도서관은 엄격히 조직된 복잡한 체계 하에서 “입수하기 어렵고, 희소하고, 비싸거나 고유한” 정보를 주는 곳이었다(OCLC 2003). 특히 그동안 대학 내의 교수와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교육 및 학술활동은 대학도서관이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 수집, 정리 및 조직한 정보와 서비스로 구성된 학술정보환경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의 웹은 자유롭게 연결되고, 제한이 없고, 쉽고 편하고 빠르다는 인식 하에, 개인은 그 안의 혼란에서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만족

한다고 생각하고(Outsell, Inc. 2003, 재인용: OCLC 2003), 도서관이 도외시 혹은 배제된 정보환경을 당연히 받아들이기도 한다.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환경의 경계 안에서 이용자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그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검색하며 이용하기를 선호하는지에 대하여 인지하고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 태도 및 행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분석하고 적응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 같은 책임은 전통적인 학술환경에서보다 디지털화되고, 분산되며, 유연한(seamless) 접근을 요구하는 정보자원과 외부의 상업적 정보제공자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정보환경에서 더욱 명백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인문학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는 과학기술자나 사회과학자들의 것과 다르다는 점이 그동안 분명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점차 전자화되어 가는 학술정보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떤 요구와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인문학자들은 주로 혼자 일하면서 인쇄매체를 선호하고, 도서관 장서보다는 자기 개인 장서에 주로 의존하면서, 과학모델에 근거하여 발전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다(Bates 1996; Wiberley, Jr., and Jones 1989; 1994).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조기 적응자(Early Adapter)”<sup>1)</sup>이며 적극적, 열성적 이용자라고 한 것에 비해(Tenopir 2003), 인문학자들도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분명히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관

찰됨이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 및 이전 연구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전자자원의 이용이 매우 적었으나(Wiberley, Jr., and Jones 1989; Wiberley, Jr. 1991 등),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들의 적응성이 점차 늘어났고(Bates 1996; Wiberley, Jr., and Jones 1994), 2000년대의 연구들은 이들의 전자자원의 의존도 및 정보기술 활용능력이 상당히 증대하였음을 보여준다(Brockman et al. 2001; Tenopir 2003).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 분야의 학술정보환경의 변화는 최근 크게 눈에 띄고 있다. 예를 들어, 민족문화추진회,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한문고전의 국역과 보급이 활발해지고, 각 대학도서관, 박물관, 기관, 단체 및 정부 소장 고서 및 고문서의 디지털화된 원문의 양이 증대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원문과 번역문을 CD-ROM 등의 매체를 통해서나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또한 다양해졌다. 또한 이메일이나 한글워드프로세서의 보급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인문학분야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한 학회지 논문은 온라인으로 데스크탑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수천종의 인문학 분야 해외 전자저널 및 다양한 초록과 색인, 전문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다른 나라의 인문학자들도 대규모의 디지털화된 이차저널 문헌의 전문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교적 오래지 않았다고 하였고(East 2005),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이 이처럼 학술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실제로 적응하는 방법과 태도,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행태의 현상과 변화에 대해 포괄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변화하는 정보환경 내에서 전통적 정보자원과 새로이 등장하는 전자형 정보자원을 얼마나 이용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자료의 현재 이용 행태와 중요도의 인식 및 향후 이용의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선행연구의 분석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술정보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관심은 실제로 오래도록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특히 인터넷과 웹의 확산 및 전자자원의 급증이 두드러진 1990년대 후반 들어 보다 활발해지는 추세이다(Brockman, et al. 2001; Friedlander 2002; Gardiner, McMenemy and Chowdhury 2006; Herman 2003, 2004; SIRU 2002; Talja and Maula 2003; Tenopir 2003). 개별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은 특히 1960-70년대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발표된 주요한 연구들은 과학 및 공학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 점차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1) 혹은 “조기 채택자(Early Adopter)”라고도 함.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보다 나중어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Case 2003). 구미지역에서는 1980-90년대에 주목할 만한 인문학자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었으나(Bates 1996; East 2005; Hughes and Buchanan 2001; Pankake 1991; de Tiratel 2000; Wiberley, Jr. 1989, 1991; Wiberley, Jr., and Jones 1994, 2000)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다.

인문학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다룬 주요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Wiberley, Jr.와 Jones가 지속적으로 발표한 일련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989년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인문학 연구소(Institute for the Humanities) 소속 11명의 연구자를 심층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들은 인류학, 영어, 역사, 예술사, 철학, 정치학, 여성학 분야에서 매우 생산적이고, 성숙한 학자들로서, 일차 및 이차자료 읽기(reading)를 전문성 획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삼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연구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공동연구가 일반적인 관행인 자연과학자 및 사회과학자와 구별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모두 OPAC은 사용하지만,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본적이 없고, 컴퓨터가 자신의 연구 작업을 변형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구를 위해 도서관 장서에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일반참고사서보다 아카이브나 특수컬렉션 이용시에 담당사서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최신 문헌 및 연구 동향의 주지를 위해 한두 가지의 공식적 서지를 이용하지만, 반드시 정기적이거나 “긴박하게, 혹은 집중적으로” 이용하지는 않

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기계가독형 서지데이터베이스 이용능력이나 이용의도가 없고, 컴퓨터화된 서지의 혜택을 별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

Wiberley, Jr.(1991)은 이후에 다시 동일한 연구소에 소속된 20명의 연구자를 인터뷰하였다. 1990년대에는 보다 많은 학자들이 컴퓨터, 기계가독정보원, 이메일 및 기타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합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는 과학자들의 행태에 근거하여 발전된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문학자들은 혼자 일하지만, 같은 분야 동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저술하며, 문헌의 최근 동향 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 관심을 갖지만 그 영향은 분야마다 상이하고, 연구의 목표와 규범(norms)이 과학에서처럼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 단행본을 연구발표의 도구로 삼고, 학술지 논문의 수명은 과학보다 훨씬 길고, 전체문헌을 읽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보다는 인쇄형의 문헌이 훨씬 선호된다. 각자 연구전공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Historical Abstracts*나 *Religion Index*와 같은 공식적 서지의 이용은 제한되었고, 일반서지는 특수/전문서지보다 이용률이 낮았다.

Wiberley, Jr.와 Jones(1994)는 1987-88년에 연구하였던 동일한 인문학자들을 1992-93년 다시 인터뷰하여, 워드프로세싱, OPAC, 서지데이터베이스 검색, 이메일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정보기술의 이용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은 비교적 나이가 많고,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학자들로서 자기저술의 단독 저자이며, 연

구를 위해 도서관 장서에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일반참고사서에게는 드물게 의존하고, 공식적 서지이용도 제한되었다는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워드프로세싱의 이용은 정기적, 일상적이 되었고, OPAC도 널리 이용하였으나, 그 밖의 정보기술은 아직 그리 편하게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서서히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면모를 보였다.

이보다 앞서 Pankake(1991)는 인문학 분야의 대규모 상업 데이터베이스들이 “과학분야의 모델”에 근거하여 정기간행물의 논문만을 강조하고 있어, 인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자료의 유형과 컴퓨터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보다 전통적인 “old content”, 즉 오랫동안 컬렉션에 존재해 온 본문이나 일차자료를 전자파일로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일차자료 콘텐츠 수집(대중잡지, 소수민족잡지, 전문지 및 업종지, 민속, 농담, 블루스 악보, TV 및 라디오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이차 및 삼차자료 컬렉션(전기정보원, 핸드북, 일지 및 사실관련 저술, 전화번호부, 기관 및 재정지원 디렉토리 등 같은 참고정보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Pankake가 아직은 초기의 발명단계인 전자자원이 이용 촉진과 가속화 단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CD-ROM으로 소개된 주요한 서지참고도구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 공간, 장비의 확보와 더불어 이용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Pankake가 요구한 사항이 현재는 상당부분 실현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가 인문학 분야 연구자들의 요구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영국에서 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의 지원으로 수행된 SIRU(University of Brighton) 연구(2002)는 2001 Research Assessment Exercise(RAE) Census에서 추출한 영국,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지역 및 영국의 7개 고등교육기관(HEI)의 연구자 3,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연구자들이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원의 유형과 특성, 이 정보자원의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최신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문분야별 연구수행을 위한 정보이용행태의 차이 및 경향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45%의 응답률을 달성한 이 연구에서 주요한 발견은 상이한 주제 분야 사이에 연구의 요구조건과 행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였다. 학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연구자료와 연구자원제공자의 다양성 면에서, 연구자원에 대한 물리적 접근의 중요성, 및 기술과 인식제고 활동을 포함하여 “중개된 정보 및 도서관 서비스(mediated information and library service)”에 대한 요구가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원격자원발견(Remote resource discovery)과 물리적 연구자원 검색(retrieval)의 중요성 증대, 고등교육부문 외부의 연구자원에 대한 이용과 인식수준이 낮음, 그리고 전자연구자원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 중개된 주제 게이트웨이와 포털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는 모든 주제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Brockman 등(2001)은 미국 대학의 인문학자들의 정보행태에 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33명의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29명)과 Univ. of Chicago(4명) 소속 인문학 전공교수들을 대상으

로 프로젝트 기반 반구조형(semi-structured)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들 가운데 5명을 대상으로 검색 세션 관찰, 문헌분석과 인터뷰, 및 업무 현장 관찰로 구성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후속 조사로 다시 인터뷰 하였다. 이 연구는 이전에 수행되었던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하여 다소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하여, 불과 십여 년 사이에 많은 인문학자들이 급격한 기술적 변화에 잘 적응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De Tiratел(2000)은 아르헨티나의 18개 대학에 소속된 53명의 철학,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인문학 연구자와 61명의 사회과학 연구자를 서베이 하였다. 연구를 위한 정보검색과 최신 정보 주지를 위한 정보검색으로 구분하고, 도서관과 서지(Bibliographies) 및 이차정보원의 이용 빈도 및 이용 자료 형태, 장애 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이 인용하는 문헌의 주제 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의 도서관 이용의 주된 목적은 이전에 식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책과 학술지의 불충분한 장서, 자료 망실, 자료 요청과 입수 사이의 시간 지연, 자료 검색과 입수의 어려움 등을 장애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사회과학 연구자들보다 도서관 의존도가 더 높았고, 더 오래된 자료들을 이용했다. 분야 내 인용(discipline autocitation) 비율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인문학 보다 더 높았고, 인문학 내에서는 철학이 예술이나 어문학보다 더 높았다. 연구의 결론은 보다 발전된 정보시스템과 서비스를 가진 나라들의 이용 및 이용자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이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ardiner, McMenemy와 Chowdhury(2006, 351-356)은 영국 대학에서 컴퓨터정보학, 비즈니스/경영학, 영문학의 세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검색 엔진의 일반적 이용, 인쇄 및 전자정보자원의 이용 및 그에 대한 태도, IT 기술과 정보리터러시, 물리적 도서관 이용과 전자적 접근, 가상도서관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하였다. 웹 기반 설문을 이용한 서베이에 서 9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 가운데 거의 15%는 도서관 OPAC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이용하였고, 비즈니스/경영학, 영문학, CIS 순으로 분야별 이용 빈도의 차이가 있었다. 검색 엔진은 분야별로 큰 차이가 없이 많이 사용되었고(78-89%),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원이었지만, 메타 검색 엔진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우받지는 못하였다. 이들이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구를 위한 정보수집(37%)과 텍스트 접근(30%)이고, 정보자원 이용 사이에 어느 정도 중요한 분야 간 차이는 있었지만 “이른바 인쇄 도서의 죽음(the so-called death of the printed book)”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전체의 8%만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전자책을 사용하였고, 46%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영문학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보다 전자책을 비교적 더 많이 사용하였고, 전체적으로 10%미만이 일 년에 한번 정도 사용할 뿐인 텍스트 아카이브도 영문학 연구자들은 거의 절반 정도가 일 년에 적어도 두어 차례 사용함으로써 다른 분야(CIS 34%, 비즈니스/경영학 14%)보다 높은 이용 빈도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예술 및 인문학 분야는 전자정보자원을 자신의 일상 업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 과학 관련

분야보다는 느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문학자의 정보요구 및 정보추구환경에 관련된 연구들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 상이한 지역, 환경 및 규모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은 대체로 독자적 연구자로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과 구별되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보이며, 전자자원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최근의 학술정보환경에 적응해 나가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며, 기존의 행태적 특성은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보요구와 행태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1 연구의 내용과 범위

이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대학에 소속된 인문학자들의 일반적 연구행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이 연구, 교육, 및 행정 등 기타 업무에 대한 시간의 배분, 단독연구 및 공동연구의 참여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보자원과 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연구를 위한 정보자원과 서비스 이용, 인쇄학술지, 책, 신문·잡지 등 자료의 이용 빈도 및 중요도 인식, 향후 오년 동안 각 자료의 이용 빈도 변화의 전망 등을 살펴보았다.

#### 3.2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데이터의 수집은 수도권과 각 지방 권역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을 각각 열한 개씩 표본 선정하고, 세 개의 대학을 임의로 선정하여 스물다섯 개 대학의 인문학 분야<sup>2)</sup> 전임교수들 가운데 799명을 서베이 대상으로 확정된 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사이 우편 서베이를 실시하여, 모두 132개의 분석 가능한 설문을 수집하였다.

또한 5명의 문헌정보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서베이 이전에 질문도구(설문) 개발을 위해, 두 번째는 서베이 이후 응답의 확인을 위하여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은 ‘한글판 SPSS 버전12’를 사용하였고, 응답의 단순빈도 분석 및 연구자의 경력에 따른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 3.3 응답자의 특성

서베이 응답자 132명 가운데 분석 가능한 121명 중 88.4%(107명)가 남자였고, 11.6%(14명)가 여자였다. 최초의 표본 799명 가운데 여자가 82명 정도(10.26%)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응답자들 내의 성비는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125명)의 전임교수로서의 경력은 가장 적게는 임용 첫째(1명, 0.8%)부터 33년(1명, 0.8%)까지 범위에 놓여 있으나, 평균은 15.25년(표준편차 8.823)이었다. 이들을 전임교수로서의 경력

2) 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표 인문학” 참조.

에 따라 신진연구자(5년 이하),<sup>3)</sup> 중견연구자(6-15년) 및 최고경력자(16년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신진연구자에 속한 응답자들은 모두 23명으로 전체의 17.8%를 구성하였고, 중견연구자는 44명(34.1%) 및 최고경력자는 58명(45.0%)이었다. 이렇게 연구자 집단을 구분한 이유는 이들의 경력에 따라 정보행태에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최종학위에 대한 응답자(128명) 가운데 절대 다수(127명, 99.2%)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단 한명만이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인문학 분야에서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박사학위 소지임을 보여준다. 이전에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Universidad de Buenos Aires)에서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자의 정보 이용과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124명의 서베이 응답자 가운데, 인문학자의 29%, 사회과학자의 13.7%만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한 것<sup>4)</sup>에 비교하면 그 차이는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 가운데 전공을 밝힌 사람들은 118명으로,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등 모두 열다섯 개 전공분야로 분산되어 있다.

## 4. 서베이 결과의 분석

### 4.1 인문학자의 일반적 연구 행태

○ **연구자의 업무시간의 배분:**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은 연구와 교육, 그리고 행정 등 기타 업무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연구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전체 업무에서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은 평균 41.93%, 교육에는 37.86%, 기타 업무에는 20.07% 정도였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한 최빈값으로는 연구에 40%, 교육에 30%, 기타 업무에는 10% 정도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시간의 배분은 Friedlander(2002)의 연구에서는 인문학 분야의 교수들이 연구보다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Friedlander는 이들은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모든 소스로부터 정보를 입수, 검토 및 분석하는 데 일주일에 평균 15.79시간 정도를 사용하였다. 특히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속한 교수들은 교육중심 대학들보다 이러한 정보추구와 분석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 것이, 이들 기관의 연구 중심적 기능과 일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연구과제의 수행:** 이 연구에서 단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들(9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한 개만을 수행하고 있었고(62명,

3) 박사학위 과정은 개별 학문분야의 규범과 연구방식을 습득하는 기간이라고 할 때(Bates 1996), 이 연구에서는 학위의 취득 후 대학에서 전임교수의 직을 가짐으로써 독립된 연구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정의한다. 또한 학술진흥재단에서도 '신진교수'를 임용 5년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4) Romanos de Tiratel, Susana, 2000. "Accessing Information Use by Humanists and Social Scientists: A Study at the Universi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5): 346-354, 349.

64.6%), 일부는 두 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30명, 31.3%), 세 개 이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4명, 4.2%). 협동연구를 수행한다고 한 응답자들(43명)은 단독연구 수행자의 수보다 훨씬 적었고,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한 개의 협동연구에만 참여한다고 하였다(30명, 69.8%). 일부는 두 개의 협동연구에 참여하였지만(11명, 25.6%), 다소 이례적으로 한 명씩의 연구자가 각각 3개(2.3%)와 4개(2.3%)의 협동연구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전체 응답자들(129명) 가운데 단독연구와 협동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20% 정도(27명)로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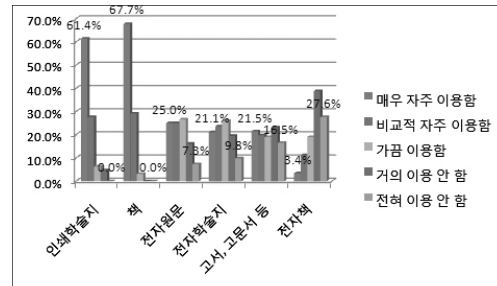
#### 4.2 정보자료의 이용

이 연구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연구 목적의 정보자료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쇄학술지, 책, 신문·잡지, 고서·고문서, 지도자료,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동영상/음향자료, 실물자료, 마이크로필름/피시 등 마이크로물, 인쇄형 서지·색인·초록, 온라인 서지·색인·초록, 전자원문, 전자학술지, 전자책, 전자프린트, 데이터세트 등 열여섯 가지 유형의 정보자료의 이용 빈도, 앞으로 오년 동안 자신이 각 자료를 이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 및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4.2.1 정보자료의 이용 빈도

〈표 1〉은 응답자들로 하여금 열여섯 가지의 자료 각각에 대하여 '매우 자주 이용함', '비교적 자주 이용함', '가끔 이용함', '거의 이용하지 않음', '전혀 이용하지 않음'의 다섯 개 범주로 이용 빈도를 표시하게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 이용함', '가끔 이용함', '거의 이용하지 않음', 그리고 '전혀 이용하지 않음'의 다섯 개 범주로 이용 빈도를 표시하게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자료의 이용 빈도

〈그림 1〉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여섯 가지 자료, 즉 인쇄학술지, 책, 전자원문 서비스, 전자학술지, 고서·고문서 및 전자책의 이용 빈도에 대하여 보여주며, '매우 자주 이용함'과 '전혀 이용하지 않음'의 두 개 항목만 응답자의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문학자들은 책과 인쇄학술지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쇄자료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전자형태의 자료도 어느 정도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쇄자료의 이용:** 인문학자들이 인쇄자료 가운데 책에 의존하는 정도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 127명 가운데, 책을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책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고(86명, 67.7%),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37명, 29.1%)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96.9%에 달하여, 가끔 이용한다고

〈표 1〉 자료의 이용 빈도

자 료	매우 자주 이용함	비교적 자주 이용함	가끔 이용함	거의 이용하지 않음	전혀 이용하지 않음	응답자
인쇄학술지	78(61.4%)	35(27.6%)	8( 6.3%)	6( 4.7%)	0	127
책	86(67.7%)	37(29.1%)	4( 3.1%)	0	0	127
신문·잡지	1( 0.8%)	10( 8.5%)	33(28.0%)	45(38.1%)	29(24.0%)	118
고서·고문서	26(21.5%)	24(19.8%)	23(19.0%)	28(23.1%)	20(16.5%)	121
지도자료	0	12(10.4%)	19(16.5%)	45(39.1%)	39(30.2%)	115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5( 4.3%)	12(10.3%)	32(27.4%)	34(29.1%)	34(29.1%)	117
동영상/음향	2( 1.7%)	10( 8.6%)	21(18.1%)	33(28.4%)	50(43.1%)	116
실물	3( 2.6%)	2( 1.8%)	7( 6.1%)	48(42.1%)	54(47.4%)	114
마이크로필름/피시 등	1( 0.9%)	6( 5.2%)	11( 9.5%)	44(37.9%)	54(46.6%)	116
인쇄형서지/색인/초록	9( 7.6%)	36(30.3%)	34(28.6%)	24(20.2%)	16(13.4%)	119
온라인서지/색인/초록	13(11.1%)	39(33.3%)	31(26.5%)	23(19.7%)	11( 8.5%)	117
전자원문	31(25.0%)	31(25.0%)	33(26.6%)	20(16.1%)	9( 7.3%)	124
전자학술지	26(21.1%)	29(23.6%)	32(26.0%)	24(19.5%)	12( 9.8%)	123
전자책	4( 3.4%)	13(11.2%)	22(19.0%)	45(38.8%)	32(27.6%)	116
전자프린트	10( 8.4%)	17(14.3%)	36(30.2%)	33(27.7%)	23(19.3%)	119
데이터세트	5( 4.2%)	22(18.5%)	29(24.4%)	31(26.1%)	32(26.9%)	119

응답한 사람들(4명, 3.1%)에 비교할 때 책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또한 인쇄학술지를 아직도 많이 사용했다.

응답자 127명 가운데 심사논문을 수록한 인쇄학술지를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한 사람은 모두 78명으로 전체의 61.4%를,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으로 27.6%를 각각 차지하였다. 가끔 이용한다고 한 사람들(8명, 6.3%)까지 포함하면, 절대다수의 응답자(95.3%)가 인쇄학술지에 의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6명으로 전체 응답의 4.7%를 차지할 뿐이었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서·고문서 등의 이용 빈도도 높은 편에 속했다. 매우 자주(26명, 21.5%), 비교적

자주(24명, 19.8%), 그리고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23명, 19.0%)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121명) 중 60.3%가 고서·고문서를 이용하고 있었다.

○ **전자자료의 이용:** 전자자료 가운데 전자원문과 전자학술지에 대한 의존도는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전자원문은 응답자 124명 가운데 매우 자주(31명, 25.0%) 및 비교적 자주(31명, 25.0%)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였고, 전자학술지는 응답자 123명 가운데 각각 26명(21.1%)과 29명(23.6%)이 매우 자주 혹은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44.7%에 달하였다. 이들 자료 둘 다 가끔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들의 수가 가장 많았

는데, 전자원문은 33명(26.6%), 전자학술지는 32명(26.0%)이 각각 그렇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합하면 두 가지의 전자자료 모두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용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책, 전자 프리프린트나 데이터세트는 거의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전자자료의 유형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 연구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들을 포함시켰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문학자들이 이용할 만한 전자 프리프린트나 데이터세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용 빈도에 대해서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영국 대학의 연구자들도 데이터세트, 텍스트 아카이브, CD-ROM 등의 전자자료는 이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Gardiner, McMenemy and Chowdhury 2006, 349).

○ **이차자료의 이용:** 그 밖에 응답자들이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한 비중이 높은 자료는 인쇄형 서지·색인·초록(36명, 30.3%)과 온라인 서지·색인·초록(39명, 33.3%)이다. <표 1>에서 전체적 이용 빈도가 높은 다섯 가지 자료들이 모두 일차자료이며 텍스트 중심인 데 반하여, 이들 인쇄형 및 온라인 서지·색인·초록은 이차자료로서 둘 다 비교적 자주 혹은 가끔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들의 집단이 컸다. 이 연구에서는 서지, 색인, 초록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전체적 이용 빈도는 주요한 일차자료보다 낮아도, 일차자료를 찾기 위한 도구로서 의존도는 충분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de Tirateli가 조사한 아르헨티나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서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인문학 연구자의 72.7%와 사

회과학 연구자의 77.1%가 관심 주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신 동향을 주지하기 위해 서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 학술지를 직접 뒤지거나 동료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서지가 최신 정보 주지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하긴 하지만, 절대다수가 책이나 학술지의 인용을 찾고, 전문화된 문헌을 위해 공식적 접근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de Tirateli 2000, 349). 한편 Pankake는 1990년대 초반 이전의 인문학자들의 정보요구 및 행태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하면서, 정보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든 서지와 일차자료 정보원은 계속 존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컴퓨터화된 정보원의 조각보 켄트(patchwork quilt of computerized information sources)”는 학자들의 요구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와 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문학연구자들이 인용하는 것의 20% 가량만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Pankake 1991, 10). Pankake가 지적한 초록, 색인,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불충분한 포괄범위(coverage)와 같은 문제는 거의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이들의 포괄범위가 확대되고 전자화된 정보량이 급증함으로써 미국이나 유럽의 연구자들에게서는 대부분 해결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포괄적 수준의 인문학 분야 이차자료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비인쇄자료의 이용:** 상대적으로 신문·잡지, 지도자료,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동영상/음향, 실물, 마이크로물 등의 전통적인 비인

쇄형 도서관 자료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 지도자료는 전체 응답자(115명)의 69.3%(84명),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는 응답자(117명)의 58.2%(68명), 동영상/음향자료는 응답자(116명)의 71.5%(83명), 특히 실물(artifact)은 응답자(114명)의 89.5%(102명)가 거의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이크로필름 혹은 마이크로피시 등의 마이크로 포맷자료도 역시 거의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4.5%에 달했다. 이 연구는 책이나 시청각자료 양 쪽에 다 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새로운 오리지널 자료를 담고 있기보다는 이전에 간행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Evans 2000, 281) 텍스트를 저장 및 접근하는 주요한 매체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마이크로포맷 자료가 그 중요도를 거의 상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ardiner, McMenemy와 Chowdhury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조사한 영국 대학의 연구자들 가운데 84%가 대학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컬렉션을 “전혀(never)”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컴퓨터/정보과학 분야 연구자 가운데 아무도 이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데 반하여 비즈니스/경영학 및 영문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그래도 한 25-30%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용한다고 하였으나(2002, 349),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음은 명백하다.

#### ○ 연구자 집단별 자료의 이용 빈도

〈표 1〉에서 전체적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인쇄학술지(심사 논문), 책, 고

서, 고문서, 회귀본 등 일차자료, 전자원문서비스 및 전자학술지의 다섯 개 자료에 대하여 연구자 집단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정의한 대로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및 최고경력자의 세 개 집단의 각 자료별 이용 빈도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경력에 따라 자료 이용의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차이점만 기술하였다.

- **연구자 집단별 책의 이용:** 〈표 1〉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책의 이용을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최고경력자들(57명)의 70.2%가 책을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중견연구자(44명)와 신진연구자(23명)도 각각 68.2%와 60.9%가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하여, 전체적으로 연구경력이 높음에 따라 책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짐을 보여주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패턴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중견연구자는 모두 책을 매우 혹은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고, 가끔 이용한다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없었다. 신진연구자나 최고경력자 가운데 책을 가끔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들이 있었지만, 그 비율은 단지 4.3%, 5.3%일 뿐으로 책에 대한 의존도는 모든 연구자 집단에서 거의 절대적임을 보여 주었다.

- **연구자 집단별 인쇄학술지의 이용:** 인쇄학술지(심사논문)의 이용 빈도를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127명의 응답자 모두가 이용한다고 하였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은 없었다. 세 개의 연구자 집단 모두 인

쇄학술지를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특히 신진연구자들(23명) 가운데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한 응답자는 73.9%에 달하여, 64.9%, 50.0%로 각각 응답한 최고경력자(57명)나 중견연구자(44명)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세 집단 모두에서 3-7%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 연구자 집단별 고서, 고문서 등의 이용:** 고서, 고문서 등 일차자료의 이용 빈도를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121명의 응답자 가운데 중견연구자 집단(42명)에서 매우 자주 이용한다고 한 비율이 높았다. 최고경력자(55명) 가운데는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28.6%), 신진연구자(21명) 가운데는 가끔 이용한다고 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23.8%). 실제로 고서, 고문서, 희귀본 등 일차자료를 거의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비율은 최고경력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이렇게 무작위하게 나타난 이용 빈도의 양상은 고서, 고문서 등과 같이 고유한 자료는 연구자의 연구경력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전공분야나 관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었다.

**- 연구자 집단별 전자원문의 이용:** 한편 전자원문의 이용 빈도를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124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자원문의 이용은 신진연구자 집단에서 가장 두드러짐을 보여주었다. 먼저 신진연구자들(22명) 가운데 매우 혹은 비교적 자주 전자원문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 사람들은 각각 45.5%와 36.4%로 합하면 81.9%에 이른다. 반면에 동일한 범주에 중

견연구자(43명)는 48.9%, 최고경력자(56명)는 37.5%가 속하여 확연히 그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신진연구자 가운데는 전자원문서비스를 거의 혹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없는 한편, 최고경력자는 33.9%가 그 범주에 속하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추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기술적으로는 신진, 중견 및 최고경력자들 사이에 분명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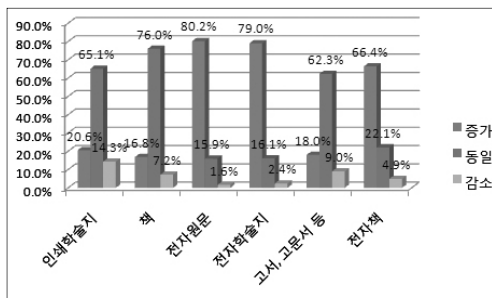
**- 연구자 집단별 전자학술지의 이용:** 전자학술지의 이용 빈도를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 또한 연구 경력에 따른 이용률의 상관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 모두 123명이 응답한 전자학술지 역시 신진연구자 집단(22명) 가운데 63.7%가 매우 혹은 비교적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고, 중견연구자(42명)와 최고경력자(56명)는 각각 50.0%, 32.1%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진연구자 가운데 전자원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자학술지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이 없는 한편, 중견연구자와 최고경력자는 각각 11.5%, 12.5%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자원문서비스와 전자학술지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전자자원으로서, 연구자들의 경력에 따라 분명 이용률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여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 4.2.2 자료 이용 빈도의 변화 전망

〈표 2〉는 응답자들이 앞서 제시한 열여섯 가지 자료 각각에 대하여 앞으로 오년 동안 그 이용 빈도가 어떻게 변할지 전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그 가운데 응답자 수가

〈표 2〉 앞으로 오년의 자료 이용 빈도 변화 전망

자료	증가	동일	감소	모름	응답자
인쇄학술지	26(20.6%)	82(65.1%)	18(14.3%)	0	126
책	21(16.8%)	95(76.0%)	9( 7.2%)	0	125
신문·잡지	10( 8.1%)	73(59.3%)	27(22.0%)	13(10.6%)	123
고서·고문서 등 일차자료	22(18.0%)	76(62.3%)	11( 9.0%)	13(10.7%)	122
지도자료	13(11.1%)	59(50.4%)	16(13.7%)	29(24.8%)	117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51(43.2%)	40(33.9%)	8( 6.8%)	19(16.1%)	118
동영상/음향	44(37.3%)	46(39.0%)	6( 5.1%)	22(18.6%)	118
실물	11( 9.5%)	65(56.0%)	13(11.2%)	27(23.3%)	116
마이크로물	19(16.4%)	58(50.0%)	17(14.7%)	22(19.0%)	116
인쇄형 서지/색인/초록	21(17.8%)	70(59.3%)	20(16.9%)	7( 5.9%)	118
온라인 서지/색인/초록	63(52.5%)	48(40.0%)	3( 2.5%)	6( 5.0%)	120
전자원문	101(80.2%)	20(15.9%)	2( 1.6%)	3( 2.4%)	126
전자학술지	98(79.0%)	20(16.1%)	3( 2.4%)	3( 2.4%)	124
전자책	81(66.4%)	27(22.1%)	6( 4.9%)	8( 6.6%)	122
전자프리프린트	56(47.5%)	48(40.7%)	4( 3.4%)	10( 8.5%)	118
데이터세트	50(43.1%)	45(38.8%)	7( 6.0%)	14(12.1%)	116



〈그림 2〉 자료 이용 빈도의 변화 전망

많은 여섯 가지 자료의 이용 빈도 변화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각 자료에 대하여 ‘증가할 것임’, ‘동일할 것임’, ‘감소할 것임’ 및 ‘모름’의 네 개 범주로 이용 빈도의 변화 전망을 측정 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들 가운데 인쇄학술지, 책, 신문·잡지 및 고서·고문서 등 일차 자료 및 인쇄형 서지·초록·색인을 포함하는 인쇄형 자료들의 이용 빈도는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전

자책, 전자원문, 전자학술지 및 전자프리프린트 등 전자형 자료들의 이용 빈도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 **인쇄자료의 이용 전망:** 인쇄학술지와 책, 그리고 고서·고문서는 현재 인문학 연구자들이 매우 혹은 비교적 자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자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용 빈도는 앞으로 오년 동안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우선 인쇄학술지는 전체 응답자 126명 가운데 65.1%(82명)가 앞으로도 동일한 빈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20.6%(26명)는 증가할 것이라고, 14.3%(18명)는 감소할 것이라고 각각 예측하였다. 책은 전체 응답자 125명 가운데 76.0%(95명)이 앞으로도 동일한 빈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16.8%(21명)는 증가할 것이라고, 7.2%(9명)는 감소할 것이라고 각각 예측하였다. 고서·고문서 등도 마찬가지로

가지로 전체 응답자 122명 가운데 62.3%(76명)가 앞으로도 동일한 빈도로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18.0%(22명)는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고, 9.0%(11명)는 감소할 것이라고 각각 예측하였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전자형 자료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더라도, 기존의 인쇄자료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전자자료의 이용 전망:** 전자자료는 전체적으로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자원문은 126명의 응답자 가운데 절대 다수인 80.2%(101명)가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고, 15.9%(20명)는 동일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단 1.6%(2명)만이 감소할 것이라고 각각 예측하였다. 마찬가지로 전자학술지는 124명의 응답자 가운데 79.0%(98명)가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고, 16.1%(20명)는 동일할 것이라고 하였고, 2.4%(3명)는 감소할 것이라고 각각 전망하였다. 전자책은 현재 전자원문이나 전자학술지보다 이용되는 빈도가 훨씬 적었지만, 앞으로는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응답자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응답자 122명 가운데 81명, 66.4%). 전자 프리프린트나 데이터세트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자료인데, 그래도 이용 빈도면에서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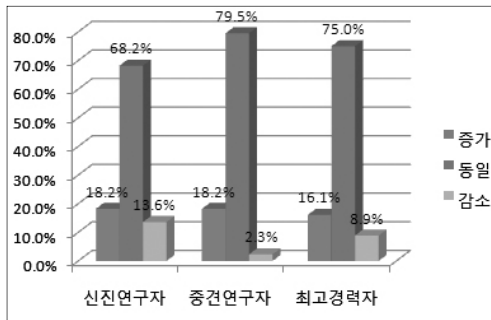
○ **이차자료의 이용 전망:** 이차자료인 서지·초록·색인의 이용 빈도 전망은 인쇄형과 온라인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났다. 인쇄형 서지·초록·색인의 이용 빈도는 동일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고(응답자 118

명 가운데 70명, 59.3%), 증가(21명, 17.8%) 혹은 감소(20명, 16.9%)를 전망한 사람의 수는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온라인 서지·초록·색인은 증가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고(응답자 120명 가운데 63명, 52.5%), 단 3명(2.5%)만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차자료 역시 전자형의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었다.

○ **비인쇄자료의 이용 전망:** 앞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이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대부분의 비인쇄자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년 동안에도 이용 빈도가 동일할 것, 말하자면 별로 혹은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들의 수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지도자료의 이용 빈도는 전체 응답자(117명) 가운데 50.4%(59명)가 동일할 것이라고 하였고, 실물은 56.0%(116명 가운데 65명), 마이크로 필름/피시 등은 50.0%(116명 가운데 58명), 신문·잡지는 59.3%(123명 가운데 73명)이 각각 그렇게 응답하였다. 이 가운데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의 이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의 수(118명 가운데 51명, 43.2%)가 동일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40명, 33.9%)보다 다소 많았고, 동영상/음향 등은 증가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의 수(118명 가운데 44명, 37.3%)가 동일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46명, 39.0%)보다 약간 적었다.

○ **연구자 집단별 자료 이용 빈도의 변화 전망**  
여기에서는 <표 2>에서 응답자들이 앞으로 오년 동안 가장 많이 변할 것이라고 전망한 인쇄학술지(심사 논문), 책, 전자원문서비스, 전

자학술지 및 전자책의 다섯 개 자료에 대하여 연구자 집단별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정의한 대로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및 최고경력자의 세 개 집단이 각각 앞으로 자료 이용 빈도가 얼마나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고, 단순히 차이점만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자 집단별 책과 전자원문의 이용 빈도 전망에 대해서는 각각 <그림 3>과 <그림 4>에서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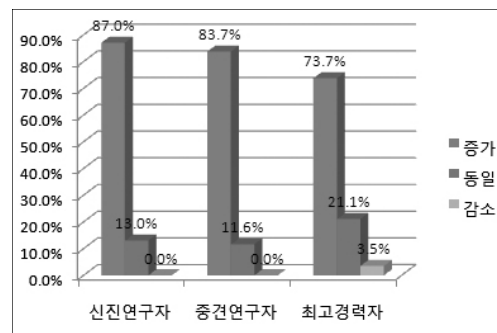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자 집단별 책의 이용 변화 전망

연구자 집단별 책의 이용 전망: 앞으로 오년 동안에 자신이 책을 이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한 내용을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응답자 125명 가운데 신진연구자(22명의 68.2%), 중견연구자(44명의 79.5%) 및 최고경력자(56명의 75.0%)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책의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중견연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고(2.3%), 신진이용자는 13.6%,

최고경력자는 8.9%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연구자 집단별 인쇄학술지의 이용 전망:**

앞으로 오년 동안에 자신이 인쇄학술지를 이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한 내용을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응답자 127명 가운데 신진연구자(22명의 54.0%), 중견연구자(44명의 70.5%) 및 최고경력자(57명의 64.9%)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신진연구자들은 인쇄학술지 이용이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높았고(18.2% 대 27.3%), 중견연구자나 최고경력자는 그래도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견연구자: 20.5% 대 9.1%, 최고경력자: 22.8% 대 12.3%). 또한 이러한 변화 전망을 책과 비교해보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세 집단 모두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책보다는 학술지가 전자형태로 제공되는 비율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기대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 연구자 집단별 전자원문의 이용 전망

- 연구자 집단별 전자원문의 이용 전망: <그림 4>는 앞으로 오년 동안에 자신이 전자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한 내용을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 126명 가운데 전자원문서비스의 이용 빈도는 세 개의 연구자 집단 모두가 압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진연구자(23명)는 87.0%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여 중견연구자(43명의 83.7%)나 최고경력자(57명의 73.7%)보다 증가를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앞에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진연구자들은 현재 전자원문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단이기도 하면서, 향후 그 이용이 증가할 것임을 전망함으로써 다른 집단들보다 전자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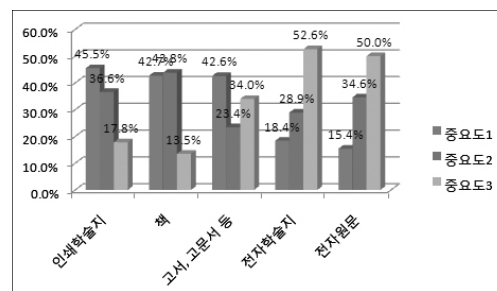
- 연구자 집단별 전자학술지의 이용 전망: 앞으로 오년 동안에 자신이 전자학술지를 이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한 내용을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응답자 124명 가운데 세 개의 연구자 집단 모두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증가를 전망하는 비율이 중견연구자 집단(43명의 83.7%)이 신진연구자 집단(23명의 82.6%)보다 약간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최고경력자의 일부(55명의 5.5%)가 유일하게 전자학술지의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지만, 이들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한 사람들의 비율(72.7%)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 연구자 집단별 전자책의 이용 전망: 앞으

로 오년 동안에 자신이 전자책을 이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한 내용을 연구자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이용 증가에 대한 예측 전망은 중견연구자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3명의 72.1%). 그 다음은 최고경력자(55명의 63.6%)와 신진연구자(21명의 61.9%) 순이었다.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 가운데 전자책의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는 반면, 최고경력자는 6명(10.9%)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4.2.3 중요한 자료

<표 3>은 인문학자들이 열여섯 가지 자료들 가운데 연구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빈도로 언급된 다섯 가지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른 결과는 현재 이용 빈도가 높은 자료들의 순서와 상당히 일치하였다.



<그림 5>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인쇄자료의 중요성: 가장 중요도가 높은 자료는 인쇄학술지와 책이었다. 인쇄학술지는 모두 101명의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거나(45.5%),

〈표 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자 료	중요도1	중요도2	중요도3	응답자
인쇄학술지	46( 45.5%)	37( 36.6%)	18( 17.8%)	101
책	38( 42.7%)	39( 43.8%)	12( 13.5%)	89
신문·잡지	0	1( 20.0%)	4( 80.0%)	5
고서·고문서 등 일차자료	20( 42.6%)	11( 23.4%)	16( 34.0%)	47
지도자료	0	1(100.0%)	0	1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0	0	4(100.0%)	4
동영상/음향	0	0	2(100.0%)	2
실물	1( 50.0%)	0	1( 50.0%)	2
마이크로물	0	1(100.0%)	0	1
인쇄형 서지/색인/초록	1(100.0%)	0	0	1
온라인 서지/색인/초록	2( 14.3%)	4( 28.6%)	8( 57.1%)	14
전자원문	8( 15.4%)	18( 34.6%)	26( 50.0%)	52
전자학술지	7( 18.4%)	11( 28.9%)	20( 52.6%)	38
전자책	0	1( 20.0%)	4( 80.0%)	5
전자프리프린트	2( 20.0%)	0	8( 80.0%)	10
데이터세트	1( 33.3%)	1( 33.3%)	1( 33.3%)	3

두 번째(36.6%), 혹은 세 번째(17.8%)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언급한 것은 책이다. 모두 89명의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다거나(42.7%), 두 번째(43.8%), 혹은 세 번째(13.5%)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책이 두 번째로 중요한 자료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과 단 한명의 차이일 뿐이었다. 책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매우 자주 혹은 비교적 자주 이용하고, 극소수만이 가끔 이용한다고 한 자료였고, 그런 만큼 여기에서 중요도를 인정한 것 또한 일관성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고서·고문서 등의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자들도 적지 않았다. 47명의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42.6%)가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고,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34.0%).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23.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이 언급한 인쇄학술지와 책의 중요성은 인문학 연구자의 행태를 다룬 다른 연구들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특히 영국의 SIRU 연구(2002)의 결과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연구에서 “필수적(essential)”이라고 생각하는 자료를 책과 인쇄학술지라고 하였고, 전자자료도 중요하다고 인정했지만, 비 텍스트(non-text) 자료는 여전히 현저히 낮은 이용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등 다른 주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모든 주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책의 중요성을 압도적으로 인정하였고, 적어도 삼분의 이 정도의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책을 필수적이라고 여겼다. 그 같은 견해는 서베이 응답자들만이 아니라, 포커스 그룹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헌조사에서는 책의 중요성을 지원하는 증거는 그리 많

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SIRU 연구의 응답자 가운데 95%는 또한 인쇄학술지, 즉 인쇄형 심사 학술지(printed refereed journals)를 필수적이라고 하였고, 전자학술지의 등장과 인기가 아직은 인쇄학술지의 중요성을 축소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또한 인쇄학술지에 대한 의존이 앞으로도 한동안 모든 학문분야 전반에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인문과학과 예술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인쇄자료에 의존할 것으로 믿어지며, 이들은 인쇄형 '비심사(non-referred)' 학술지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전자자료의 중요성:** 전자원문을 중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모두 52명으로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50.0%)가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34.6%).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15.4%를 차지하였다. 전자학술지를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38명) 가운데에서도 역시 가장 많은 수(52.6%)가 세 번째 정도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고(28.9%),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18.4%였다. 한편 전자자료 가운데 전자 프리프린트나 데이터 세트는 잘 이용되지 않기도 했지만, 그 중요성 또한 매우 미약하게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전자자료, 특히 전자학술지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영국의 SIRU 연구(2002)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전자적 접근에 대해서는 학문분야 간 격차

가 매우 명백했다. 의학과 생물학 연구는 대단히 저널문헌과 일차 데이터에 대단히 의존하였고, 이들 집단의 사분의 삼이 전자학술지, 전자원문(full text) 서비스에 대한 전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것에 비해 예술과 인문과학, 지역연구와 언어 분야의 연구자들 가운데 사분의 일 이하가 학술지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포커스 그룹은 예술과 인문학에서 낮은 이용률과 전자형태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종수가 비교적 적은 것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차자료 및 비인쇄자료의 중요성:** 인문학자들이 앞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인쇄형 서지·색인·초록을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단 한명이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하였다. 온라인 서지·색인·초록은 14명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단 두 명(14.3%)이었고, 세 번째로 중요하다거나(8명, 57.1%)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4명, 28.6%)의 수가 더 많았다. 지도자료,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동영상/음향 등 자료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자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단 몇 사람의 응답자들만이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러한 응답의 양상은 전체적으로 비인쇄자료의 이용 빈도가 낮았던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의 SIRU 연구(2002)에서도 컴퓨터화된 데이터 세트, 사진 및 정지영상, 동영상과 실물자료(artefacts) 등과 같은 비텍스트 자료의 이용도는 놀랄 만큼 낮음을 보여 주었다. 다만 디지털 이미지는

과학 연구계에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징후가 있었다고 하였지만, 인문학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인문학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들은 이용 빈도 및 중요성의 인식 면에서 모두 낮음을 확인하고 있다.

###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실제로 어떠한 정보자료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중요시 하며, 또한 이들 정보자료의 이용 빈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나타난 인문학자들의 특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인문학자들은 일상적 업무 시간을 연구와 교육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할애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단독연구를 수행하며, 한 개의 단독연구만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동시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단독연구를 수행하는 응답자들도 일부 있었고,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는 응답자들도 있었으나 그 수는 적었다.
- 인문학자들은 책이나 학술지 논문 등 인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상당히 높으며, 고서나 고문서 같은 자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자학술지나 전자 원문 등 텍스트 형태의 전자자료도 비교적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전자자료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

문학 연구자들은 신문·잡지 혹은 지도자료, 사진/이미지 등 시각자료, 동영상/음향, 실물, 마이크로물 등의 전통적인 비인쇄형 도서관 자료 및 전자프린트와 데이터 세트의 이용도는 매우 낮았고, 향후 이용도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인문학 연구자들은 인쇄형이든 전자형이든 텍스트 형태의 자료에 거의 의존하며, 그것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 인문학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료들은 인쇄학술지와 책으로서, 이들의 현재 이용 빈도가 높은 것과 일관성 있다고 하겠다. 이 두 자료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비율도 높았던 한편, 전자자료가 중요하지만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비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 인문학자들을 대학의 전임 임용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최고경력자 집단으로 구분하여 행태의 몇 가지 특성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분명 집단별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자료의 이용 면에서 그러했다. 전체 응답자 집단이 크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신진연구자들은 전자자료에 대한 현재 이용 빈도, 향후의 이용 전망 등이 다른 두 집단의 연구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였고, 또한 중견연구자들은 신진연구자보다는 낮지만 최고경력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

구경력에 어느 정도 반비례하는 관계를 시사하고 있었다.

인문학자들이 가진 이러한 특성에 따라, 대학도서관은 이들을 위하여 적절한 장서와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아웃리치(Outreach)”가 필요하다. “아웃리치(Outreach)”의 개념은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커뮤니티”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아가서 파고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로 의미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도서관에서의 아웃리치 또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미국의 대학도서관협회가 “학술커뮤니케이션 아웃리치”<sup>5)</sup>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워크숍은 대학도서관을 둘러싼 학술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행태가 변화해 가고 있는데, 과연 대학도서관이 이들의 변화하는 행태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그리고는 대학도서관 사서들도 학술연구자들의 실제적 학술 커뮤니케이션행태의 정보와 의미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뷰 전략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아웃리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문학자들이 사실상 매우 다면적이고 분산된 독자적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이 그들의 “커뮤니티”로 더욱 파고 들

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인문학자들은 연구자이면서 교육자이다. 이들의 전형적 업무 시간은 연구와 교육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종종 행정과 같은 그 밖의 업무에도 할당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서 이들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나 서비스가 그 같은 다면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같은 개별적 요구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구에 관련된 요구만 보아도 인문학자들은 대체로 독자적 연구자로서 단독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들이 연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자료들도 각자의 전공 분야나 연구 관심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대학도서관에서는 연구자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문학자들이 도서관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Brockman 등(2001)은 “모호한 일차자료”를 거의 전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문학자들도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연구과정이 보다 쉽고, 빠르며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소수만이 도서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다른 연구들(Wiberley, Jr. and Jones 1989, 1991 등)에서 인문학자들이 도서관의 장서나 참고사서의 도움에 그리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

5) ARL/ACRL Institute on Scholarly Communication Workshop “Scholarly Communication Outreach: Crafting Messages that Grab Faculty Attention,” March 11 - 12, 2009, in Seattle, Washington. [cited 2009.1.25]. <http://www.arl.org/news/pr/isc-7oct08.shtml>.

과이다. 인문학자들이 도서관에 별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 정보환경 내에 도서관의 입지가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먼저 이들을 찾아가고, 이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아웃리치의 한 예로서 기존 서비스의 보다 적극적인 시행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대학도서관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교수들이 상시 필요한 자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도서관 측에서도 일 년에 몇 차례 정기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도록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빈번하게, 예를 들면 한 달 혹은 매 주에 한 번 등으로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없는지 먼저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도서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수시로 상기시켜 줌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표출할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SMS 서비스나 인트라넷을 통해서 학내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으므로, 대학도서관이 이를 활용하여 인문학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아웃리치가 가능해진다고 하겠다.

둘째, 대학도서관은 인쇄 및 전자자원 장서의 균형적 구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서관은 학자들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양상이 아무리 변화한다 해도 아직까지 인쇄 및 온라인 자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Maron and Smith, 2008). 앞서 다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문학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하더

라도,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쇄 및 전자자료의 형태 및 주제적 다양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장서를 구성하여 제공할 책무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은 인쇄학술지와 책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정보자원과 전자원문 및 전자학술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보자원이 공존하는 전형적 과도기의 행태를 보여준다. 이들은 현재 인쇄자료를 보다 빈번히 이용하고,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앞으로도 그 이용 빈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아직은 인쇄자원의 축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점차 전자자원의 축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현재는 전자원문과 전자학술지만 이용할 뿐이고, 그 중요도 또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정도로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이용 빈도가 아주 낮지는 않고, 앞으로 이용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결국 인쇄자원과 전자자원 장서 구성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양자를 모두 요구하는 인문학자들의 요구 충족이 어려운 시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실제로 어떤 단일 도서관이나 기관도 소속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더욱이 인문학이라는 광범한 학문분야 전반에 속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일한 요구와 행태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 연구자로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행태적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사실상 개개인의 소속 학과, 전공이나 관심분

야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에서 인문학자들 가운데 모든 이용자 집단이 갖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장서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문학자의 소그룹 별로 이들의 정보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contextual information)”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 분야별 소그룹이 갖는 정보요구와 행태의 구체적이고 고유한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 “충족되지 않은 요구(unmet needs)”가 많은 주제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도서관 인쇄 및 전자자원 장서 구성과 서비스 개선 및 확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학도서관은 전통적 정보자원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육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자들은 아직까지 인쇄학술지와 책의 이용 빈도가 현저히 높고, 그 중요성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이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러한 전통적 유형의 자료와 정보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찾기 위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ast(2005)는 인문학자들의 정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통적 자료를 제대로 이용하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자료 유형에 따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어, 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 적합한 책을 파악하기 위한(도서관 목록을 포함한) 적절한 서지도구 인지

- 추가적 참고문헌을 찾기 위하여 도서관 서가를 브라우징 하는 것의 가치 이해
- 책의 광범한 개인 컬렉션의 가치 인식 및 신간과 중고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소스 파악
- 분야의 주요한 출판사 인지 및 그들이 제공하는 공지서비스를 이용 가능

인문학자는 이처럼 책에 관한 것뿐 아니라, 학술지, 학위논문, 보고서, 출판사 카탈로그를 포함한 회색문헌 등 다양한 전통적 자원이 갖는 고유한 특성 및 접근방법에 대한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사실상 이런 지식의 상당 부분은 일찍이 Bates(1995)가 강조한 대로 인문학 연구자들이 석·박사 학위의 대학원 과정을 거치고 독자적 연구자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인문학자들이 대학에 신입교수로 임용될 당시에 대학도서관 교육을 받거나, 대학에 소속되어 독자적 연구자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공분야 정보원에 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에서 습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대학도서관이 점차 전자 환경으로 변화해 가면서 등장한 OPAC이나 색인·초록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보원이나 서지도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갱신된 이용 교육을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신진연구자뿐 아니라 중견연구자나 최고경력자와 같이 상이한 경력 수준의 인문학자들로 하여금 전통적 자원을 잘 찾고 접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넷째,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들의 전자자원

이용 행태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은 현재 연구를 위해 전자원문 및 전자학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체로 앞으로 그 이용이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즉 인문학자들도 전자형으로 변화하는 정보환경의 흐름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앞서 이전의 연구들(Bates 1996; Wiberley, Jr., and Jones 1989; 1994)에서 인문학자들이 주로 과학모델에 근거하여 발전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전자자원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다. 이전의 연구들이 아직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인문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이 별로 많지 않았던 십여 년 전에 수행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문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자원이 점차 증가하는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인문학자들도 자신의 정보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전자자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현재 가진 혹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연구도서관협회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Maron and Smith, 2008), 학술환경에서 전자저널, 리뷰, 프리프린트와 보고서, 백과사전, 사전 및 주석자료, 데이터, 블로그, 토론포럼, 전문가 및 학술허브 등의 여덟 가지 유형의 전자학술자원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물론 주제 분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모든 분야의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러한 “혁신적” 전자학술자원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이 전자원문이나 전자학술지 외의 프리프린트나 데이터세트 같이 다양한 유형의 전자자원은 아직은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보았으나, 이 또한 향후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인문학자들에게는 다양한 전자자료/정보의 이용 및 처리 방법, 정보원의 식별과 접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인문학 소주제별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들이 주제 분야별로 자원에서 구독하는 전자저널 패키지나 웹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교육을 시행하기도 하고, 보다 범용적인 정보검색, 조직, 처리 및 활용교육을 수행하지만, 넓게는 인문학, 좁게는 어문학, 역사학, 종교학, 철학 등과 같이 세분된 주제 분야에서의 정보원 식별, 평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결국 특정 주제 분야별로 이용 가능한 외부 정보원은 대학도서관을 통해서 파악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개별 연구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혹은 찾아서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 속한 인문학 전공학부 혹은 학과별로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돌아가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대학에 수십 개의 전공학부 및 학과가 있으므로 만약 일주일에 한 두 개의 학과씩 교육을 하면 사실상 방학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 일년 내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내의 조직체계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고 보다

지속적이며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한편 한번 교육에 참여했던 연구자들도 다음 해 교육에 다시 참여했을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도서관은 인문학자를 위한 적절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 연구에서 살펴본 인문학자들의 상당수가 아직도 도서관 소장자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 인쇄학술지, 고서, 고문서, 회귀본 등 전통적인 일차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들이 현재 전자형태의 원문도 상당히 이용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자자료에 대한 의존이 증가할 것으로 일관성 있게 전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도서관이 물리적 시설로서, 그리고 전통적 형태의 자료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갖는 중요성이 그렇게 약화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고서, 고문서, 회귀본 등의 일차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인문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학도서관들이 첨단장비와 시설을 갖춘 디지털도서관을 신축하고, 여러 도서관들이 기존의 도서관을 증개축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반면에 아직도 만성적 장서 및 열람공간의 부족으로 쾌적한 학습 혹은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대학도서관들도 상당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공간 사정이 어떠한지, 아직도 인문학자들의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이 단순히 서가를 브라우징 하거나, 찾은 자료를 대출하지 않고 도서관 열람공간 안에서 보거나, 아예 도서관 안에서 연구 활동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수준으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때, 적절한 독립적 공간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의 편의성을 확대시키고, 인문학자를 위한 일차적 정보환경으로서의 위상을 지킬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Abbott, Andrew. May 2006. "The University Library." [cited 2007.7.1].  
 <<http://www.lib.uchicago.edu/staffweb/groups/space/abbott-report.html>>.
- Barrett, Andy. 2005. "The Information-Seeking Habits of Graduate Student Researchers in the Humaniti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4): 324-331.
- Bates, Marcia J. 1996. "Information Needs and Seeking of Scholars and Artists in Relation to Multimedia Materials." *Extracted from the Report to the Getty Research Institute*  
 <<http://www.gseis.ucla.edu/faculty/bates/scholars.html>>.
- Brockman, William S., Laura Neumann, Carole L. Palmer, and Tonya J. Tidline. December 2001. Scholarly Work in the

- Humanities and the Evolving Information Environment.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04>>.
- Bevilacqua, Fabrizia. 2005. "Organizing E-Journals from the Point of View of Humanities: A Case Study at the University of Parma." *New Library World* 106(1216/1217): 416-429.
- Case, Donald O. 2003.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Amsterdam: Academic Press.
- Cobbledick, Susie. 1996.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Artists: Exploratory Interviews." *Library Quarterly*, 66(4): 343-372.
- de Tiratel, Susana Romanos. 2000. "Accessing Information Use by Humanists and Social Scientists: A Study at the Universidad de Buenos Aires, Argentina."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26(5): 346-354.
- East, John W. 2005. "Information Literacy for the Humanities Researcher: A Syllabus Based on Information Habits Research."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1(2): 134-142.
- Education for Change, Ltd., SIRU(University of Brighton), and The Research Partnership. 2002. *Researchers' Use of Libraries and Other Information Sources: Current Patterns and Future Trends: Final Report*.(Bristol: Research Support Libraries Group). [cited 2007.5.5].  
<<http://www.rslg.ac.uk/research/libuse/LUrep1.doc>>.
- Evans, G. Edward, with Margaret R. Zarnosky.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4th ed. Greenwood Village,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 Friedlander, Amy. November 2002. *Dimensions and Use of the Scholarly Information Environment* Washington, D.C.: Digital Library Federation and Council of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cited 2007.2.25].  
<<http://www.clir.org/pub/reports/pub110>>.
- Gardiner, Donna, McMenemy, David, and Chowdhury, Gobinda. 2006. "Snapshot of Information Use Patterns of Academics in British Universities." *Online Information Review* 30(4): 341-359.
- Herman, Eti. 2004. "Research in Progress: Some Preliminary and Key Insights into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Contemporary Academic Researcher. Part 1." *Aslib Proceedings*, 56(1): 34-47.
- Herman, Eti. 2004. "Research in Progress. Part 2 -- Some Preliminary and Key Insights into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Contemporary Academic Researcher. Part 1." *Aslib Proceedings*, 56(2):

- 118-131.
- Hughes, Carol Ann, and Buchanan, Nancy L. 2001. "Use of Electronic Monographs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Library Hi Tech*, 19(4): 368-375.
- Maron, Nancy L., and Smith, K. Kirby. November 2008. "Current Models of Digital Scholarly Communication: Results of an Investigation Conducted by Ithaka for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ited 2009.1.24]. <<http://www.arl.org/bm~doc/current-models-report.pdf>>.
- OCLC. 2004. The 2003 OCLC Environmental Scan: Pattern Recognition: Executive Summary. [cited 2007.5.5]. <[http://www.oclc.org/reports/escan/downloads/escansummary\\_en.pdf](http://www.oclc.org/reports/escan/downloads/escansummary_en.pdf)>.
- Pankake, Marcia. 1991. "Humanities Research in the 90s: What Scholars Need: What Librarians Can Do." *Library Hi Tech*, 9(1): 9-15.
-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November 2006. "Researchers and Discovery Services: Behaviour, Perceptions and Needs." A Study Commissioned by the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cited 2007.10.16]. <<http://www.rin.ac.uk/files/Reportfinal.pdf>>.
- Talja, Sanna, and Maula, Hanni. 2003. "Reasons for the Use and Non-Use of Electronic Journals and Databases: A Domain Analytic Study in Four Scholarly Disciplines." *Journal of Documentation* 59(6): 673-691.
- Talja, Sanna. 2002. "Information Sharing in Academic Communities: Types and Levels of Collaboration in Information Seeking and Us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143-160. 재인용: Talja, Sanna, and Maula, Hanni. 2003.
- Tenopir, Carol. 2003. *Use and Users of Electronic Library Resources: An Overview and Analysis of Recent Research Studies* Washington, D.C.: Council of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cited 2007.4.3].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20>>.
- Troll, A. Denise. "Changes in Usage, Usability, and Use Support." Forth Northumbria: 349-354. [cited 2007.5.1]. <<http://www.libqual.org/documents/admin/troll.pdf>>.
- Troll, A. Denise. 2001. "How and Why Libraries Are Changing?" Draft. [cited 2007.4.17]. <<http://www.diglib.org/use/whitepaper.htm>>.
- Wiberley, Jr., Stephen E. 1991. "Habits of Humanists: Scholarly Behavior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Library Hi Tech* 9(1): 17-21.

Wiberley, Jr., Stephen E. and Jones, William G. 1989. "Patterns of Information Seeking in the Humaniti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0: 638-645.

Wiberley, Jr., Stephen E., and William G. Jones. 1994. "Humanists Revisited: A Longitudinal Look at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55: 499-509.

Wiberley, Jr., Stephen E. and Jones, William G. 2000. "Time and Technology: A Decade Long Look at Humanists'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1(5): 421-431.